

# 복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시편 1:1-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월 1일 신년예배 설교

<sup>1</sup>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up>2</sup>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sup>3</sup>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sup>4</sup>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sup>5</sup>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sup>6</sup>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2012년 새해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 특별히 결심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연초만 되면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지요? 연초에 하니깐 안 됩니다. 담배를 한자로 연초라 하는데 연초에 연초를 멀리하려 하니 안 되지요. 안 웃 겁니까? 연초부터 실패군요. 올해도 설교에 유머를 섞지 말자, 제 새해 결심입니다. 지금 웃으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결심하십니까? 새해에는 운동을 해야지, 그런 결심도 많지요. 헬스클럽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게 있지요. 올해는 기도생활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말씀을 날마다 읽도록 해 보자, 올해는 전도도 해 보자, 그런 결심들 많이 합니다.

“새해 결심을 남에게 말하면 이중으로 괴로워진다.” (Never tell your resolution beforehand, or it's twice as onerous a duty.) 십칠 세기 영국의 법학자였던 존 쉘던 (John Selden)의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 저런 결심들을 합니다. 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좋은 건 언제나 힘들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어도 잘 안 되어 괴로운데 남에게 말까지 해 놓고 나면 남들이 뭐라 할까 하면서 체면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이중으로 괴롭다 그런 말이겠지요. 사람의 본성을 예리하게 지적한 명언입니다.

새해라고 굳이 외국으로 갈 건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고시조가 두 개 있지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십육 세기 조선의 문인 양사언의 시조입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뭘니까? “잘 가노라 달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부디 굶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시조집 <청구영언>을 지은 김천택 작품입니다. 조선 영조 때니까 십팔 세기 사람입니다. 평민 출신이었지만 훌륭한 문인이 되어 후세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둘 다 열심히 노력하라 했습니다. 목표가 너무 높다고 미리 겁먹지도 말고 이왕 시작한 것 그만둘 생각도 아예 말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일반은총에 속한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2012년 새해에도 우리 열심히 땀시다.

## 새해 복 많이

조금 전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새해 인사는 세계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영어로 “해피 뉴 이어!” 하듯이 주로 즐거운 새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 인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좀 식상하다 싶은 분들은 영어로 해피 뉴 이어 하지요.

사람치고 복 싫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복을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쓰는 가구나 살림살이에 보면 이 복 (福) 자가 차고 넘칩니다. 장롱에도 복, 화장대에도 복, 입고 다니는 옷에도 복, 깔고 앉는 방석에도 복, 잘 때 베고 자는 동그란 베개에도 보면 한쪽에는 복자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보면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입니다. 사람 이름에도 이 “복” 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정월초하루에 복조리를 팔고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이 얼마나 좋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대나무 조리를 몇 십 배 몇 백 배 값을 주고 사나 싶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에는,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세요,”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지요. 요즘은 아이를 하도 안 낳으니까 “새해에는 손주 보세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건강, 성취, 돈, 자녀, 이런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람 말고 또 이 복을 끔찍하게 좋아하는 무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부터 이 복이라는 말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는 또 복을 주셨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도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복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민족이고, 또 세상에서 복 좋아하는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한국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 모인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세상에서 복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복 있는 사람

올해 우리가 한 주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구절이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 읽을 말씀인데 내용은 역시 복이지요?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 말씀이 새해 첫 말씀일까요? 복이니까요. 원문은 훨씬 더 강합니다. “복되구나,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여!” 무슨 수사법입니까? 영탄법이지요. 강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을 강조합니다.

그냥 복이 나온다고 새해 첫 말씀이 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가끔 “복은 댔고 돈이나 좀 주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주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말로만 복 복 하면 뭐 합니까? 새해니까 복 받으라고 덕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정말로 복을 주는 것,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점을 늘 생각합니다. 목사는 예배가 마치면 축도를 하지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축도 아무리 우아하게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헛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축도 잘 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새해를 맞은 오늘도 복 받으세요 하고 덕담도 물론 합니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 멀리 할 것

복 받는 방법, 첫째는 멀리해야 됩니다. 뭘 멀리 해야 됩니까? 악, 죄, 오만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하고 거리가 멉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고 뭐가 복입니까? 악을 멀리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되구나! 영탄법이라 그랬지요. 본문에는 다른 수사법도 나옵니다. 뭘니까? 세 가지를 나열했으니 열거법 같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늘어놓은 게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되는데 이걸 발전하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집니다. 악화되는 거지요. 악인은 그냥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실행에 옮기니 죄인이 됩니다. 죄를 거듭 짓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이지요. 열거법이 아니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 곧 점층법입니다.

명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사도 같은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좇고, 그 다음은 길에 서고, 마지막에는 자리에 앉습니다. 꾀를 좇는 건 아직 머리만 굴리는 단계지요. 그런 다음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길에 서는 겁니다. 길은 가는 곳인데 바른 길 나쁜 길 가운데 나쁜 길에 섰습니다. 길에서는 가만 서있지 않습니다. 길을 갑니다. 행동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짓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게 내 삶이 됩니다. 고착됩니다. 자리에 앉아 버리는 거지요. 일단 앉으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엉덩이가 무거워지니 더 그렇지요. 길을 갈 때는 그래도 다른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앉으면 어렵습니다. 끝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게 복인데 죄를 멀리하려면 죄가 가진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본디 그렇습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 있지요. 처음에는 칭찬도 하면서 한 마디 결점을 결들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결점에만 관심을 보이니까 다음에는 몇 가지 더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무리에 끼어 돈도 훔치고, 사람도 치고, 갖가지 나쁜 짓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뻔뻔스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보기입니다. 시작은 전쟁에 안 나간 겁니다. 신하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았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진 거지요? 그게 간음죄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살인죄로 발전했는데 그래 놓고서도 남이 그런 줄 알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큰소리를 쳤지요. 조그맣게 시작된 죄가 다윗의 말년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우산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옷이 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랑비가 올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가다가 옷을 다 적시게 마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보기에 죄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사소한 것을 갖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처음부터 도박에 미치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알콜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 재미, 그런 걸로 유혹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데 맞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죄의 자리에 주저앉기 전에,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보다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는 바로 그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 여호와와 법

죄만 멀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가까이할 것도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삶은 언제나 양면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 순종 아니면 죄악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말씀하고도 안 친하지만 죄도 안 짓는다, 이런 걸 불가능합니다. 나쁜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런 세계에 몸담지도 않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 말씀, 강조한다고 율법주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 지키면 죽는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지요. 여호와와 법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법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읽으면 즐겁습니다. 공동번역이 옮긴 것처럼 여호와와 율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 묵상합니다. 그러니 복 받은 삶이지요.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렘 17:7). 여호와와 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되새기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밤낮 묵상한다는 건 성경구절만 늘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자나 깨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늘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한다는 말입니다.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전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고객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돈을 벌고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복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겉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기고 있습니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사는데, 시냇물이 바로 곁에 있으니 물이 늘 넉넉합니다. 원문에 보면 시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될 시내가 여러 개 가까이 있으니 마를 까닭이 없습니다. 물이 넉넉하니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잎이 무성하니 풍채도 좋고 또 영양분도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레미야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로 한 세상 살면서 물 걱정 없고 마음껏 자라 무성한 잎을 자랑하다가 때가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면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럼 열매는 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받으라 하는 복은 뭘니까? 돈이지요. 건강이지요. 걱정 없는 인생, 명예, 자식, 뭐 그런 게 복입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나 자신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열매라 할 때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리킵니다. 어제 저녁에도 살핀 것처럼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많이 맺었고 또 올해는 더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겁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빌 1:11). 바르게 사는 삶이지요.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쁨 때 찬송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약 5:13).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걸 열매라 하지만 우리는 잘 풀릴 때 감사하고 안 풀릴 때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열매입니다.

## 만사여의

이런 삶을 간단히 줄이면 뭘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지요? 만사형통입니다. 새해 인사 가운데 그런 게 있지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갈 때도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일이 술술 풀립니다. 복입니까? 아니지요. 죄에 점점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건 복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복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실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방법이 옳다 해도 내가 돈에 약한 사람이라면 감당 못할 돈은 절대 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명예에 약한 사람이라면 명예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모자라게 하지지도 않겠지만, 너무 많이 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잠 30:7-9). 참된 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 삶이 참된 만사형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삶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만사형통, 하나님 뜻대로 백 퍼센트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안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푸른 생명도 없거니와 만사형통하는 사람과는 달리 거처럼 바람에 날려 다닙니다. 겨는 껍데기 아닙니까? 쓸모없는 존재지요. 또 가볍습니다. 겨가 바람에 날리듯 내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부지런히 좇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저주에 떨어집니다. 의로운 삶, 곧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서로 열심히 빌어주고 또 부지런히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 성령대로 행하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성령으로 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보에 인용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자”로 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는 말이지요.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말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과 내가 함께 갑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기준, 그 원리, 그 원동력이 되십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게 도우시고 바른 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도 안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안 앉습니다. 성령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늘 좋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대로 사는데 내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맡기면 나는 두 손 놓고 있어도 된다, 내가 뒷짐 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 앞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시지만 오직 우리가 성령께 맡겨 드릴 때만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렇게 맡긴 다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납니다. 성령께

서 나 대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 고시조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되만 높다 하더라.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애쓰지 않는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면서 어떻게 목표지점에 이르겠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공짜로 받아 인생도 공짜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 잘못입니다. 평소에는 게으름만 피우다가 한 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령대로 사는 삶에는 대박이 안 터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값진 구원을 받아 놓고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태산도 하늘 아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삶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 결심과 실천

여러분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다, 사랑지를 들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본문을 읽고 기도도 하겠다, 매주일 암송할 본문을 나중에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 주간에는 암송해 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가정에서도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삶을 살고 직장에서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결심을 남에게 말하면 이중으로 괴롭다 했지요? 목표는 세웠는데 안 되니 나도 답답하고 사람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해 계획을 과감하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말하고 교회 사람들한테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남이 알면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3:13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속에 꼭꼭 숨겨두면 어떻게 알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지난 해에 통독을 할 때도 서로 물어가면서 힘을 얻은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 더 많이 암송하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대로 살아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